

**【P3-13】**

**학교급식 경영관리 지침서 개발에서 교육청, 학교장, 영양사 간의 견해 비교분석**

양일선, 차진아<sup>1)</sup>, 이해영<sup>2)</sup>, 정현영\*, 차성미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전공<sup>1)</sup>, 상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2)</sup>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erspectives of School Foodservice officials at educational board, Principals and Dietitians on Foodservice Standards Manual**

IlSun Yang, Jin-A Cha<sup>1)</sup>, Hae-young Lee<sup>2)</sup>, Hyun-young Jung\*, Sung-mi Cha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Jeonju University, Jeonju, Korea<sup>1)</sup>,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sup>2)</sup>

본 연구는 학교급식에서 경영관리지침서의 활용실태 및 요구도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고, 경영관리 지침서의 개발에 있어서 교육청, 학교장, 영양사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국 192개의 교육청, 전국 517개교의 학교급식 영양사와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2004년 7월~2004년 8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청 157곳(회수율 81.8%), 영양사, 학교장 317곳(회수율 61.5%)이 회수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침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청, 학교장, 영양사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교육청과 영양사에 비해 학교장의 인식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001$ ). 바람직한 지침서의 목적과 용도로 '학교 급식 현장에서 효율적인 급식경영관리를 위한 적용 방안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세 군 모두 동의하였지만, '학교의 급식경영관리를 위한 지도 및 관리 목적'에 대한 응답이 교육청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던 반면( $p<.001$ ), '전국 학교급식 관리의 표준화 목적'에 대한 응답은 학교장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001$ ). 급식경영 관리 및 감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 교육청의 경우 '급식작업관리', '급식 업무계획 수립', '시설설비관리' 순으로 나타난 반면, 영양사의 경우 '급식작업관리', '구매관리', '시설설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식 업무계획 수립'( $p<.01$ ), '회계관리'( $p<.01$ )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구매관리'( $p<.05$ ), '생산관리'( $p<.001$ )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현재 지침서가 급식경영관리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지는 질문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교육청(3.2)에 비해 영양사(2.8)가 유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침서가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경영관리 지침서의 문제점으로 '실무 여건에 비해 이상적인 수준 요구'라 답한 비율이 영양사에 비해 교육청이 높은 반면, '규제를 위한 기준 제시에 중점'이라 답한 비율은 영양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급식경영관리 지침서에 대한 교육청과 영양사 간의 견해 차이 및 의사소통에 문제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급식경영관리 지침서에 포함되는 10개 분야 중 '급식작업관리'에서 교육청에 비해 영양사가 활용도를 유의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p<.05$ ),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서는 활용도와 필요성 모두 교육청의 인식 수준이 유의적으로( $p<.01$ )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